무주반딧불축제 '반디체험존' 인기

무주상상반디숲 특별한 체험·유익한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지난 6일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개막과 함께 손님맞이에 분주해진 무주상상반디숲 '반디 체험존'이 다양한 체험 거리와 유익함으로 연일 방문객들을 손짓하고 있다.

무주상상반디숲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자리를 잡은 체험 부스는 모두 12곳으로, 지하 1층에서는 '우드버닝 도어벨 만들기(문화예술공장_유료)', '기후위기 목공체험(덕유산마루_무료)', '액션그룹 홍보 및 공예품 판매(무주군 신활력플러스사업단_유료)', '티셔츠&컵 인쇄 포토 프레스 체험(위위랜드_유료)', '이동건강체험장(무주군보건의료원)', '세계 민속 의상 입어보기와 함께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 캠페인(무주군가족센터)'을 즐길 수 있다.

'이동건강체험장'에서는 요일별 주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6일과 7일에는 '튼튼 무주 건강 한마당', 8일에는 '미주해요! 마음 챙김', 9일에는 '한방 힐링데이 & 손 씻기 실천의 날', 10일에는 '치매 안심의 날'이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11일에는 '오늘부터 금연 1일', 13일과 14일에는 '튼튼 무주 건강 한마당'이 열릴 예정이다.

무주상상반디숲 지상 1층 실내에서는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에서 준비한 '환경사랑바자회'와 '반딧불 감정 기록 키링 만들기(3bok Entertainment_유료)', '나무 오카리나·슬라임 만들기(무풍승지영농조합법인_유료)', '린넨 인형·코사지 만들기(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_유료)'를 즐길 수 있다.

사진지난 6일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개막과 함께 손님맞이에 분주해진 무주상상반디숲 '반디 체험존'이 다양한 체험 거리와 유익함으로 연일 방문객들을 손짓하고 있다.

특별히 생명나눔 주간을 맞아 '생명나눔 희망씨앗 캠페인'도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증 희망 등록을 독려하는 것으로, 14일까지 'OX 퀴즈'를 통해 이해를 돕고 상담 및 등록 절차가 이행된다.

1층 출입문 입구(외부)에서는 '친환경 고체 방향제 만들기(강살리기 네트워크_유료)'와 '친환경실천 포토존(무주군청)'이 마련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한편, 인근 무주최북미술관에서는 권혁도 작가의 책, '꽃과 나비', '사마귀 한 살이', '왕잠자리 한 살이', '곤충도감 '등에 게재된 원화 2백여 점을 만날 수 있는 "권혁도의 곤충 세밀화" 전시회가 개최 중으로, '곤충 스탬프로 나만의 작품 만들기' 등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진안군 포함해야"

진안군의회, 강력 촉구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반드시 진안군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내륙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오랜 세월 농민들의 삶이 이어져 온 고장이지만, 용담댐 건설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지역이다. 댐 건설 과정에서 6개 읍·면, 68개 마을이 수몰되었고 약 1만 2000여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논밭과 마을은 물속에 잠겼고, 군민들은 고향과 더불어 삶의 기억과 정체성마저 상실했다.

그러나 그 희생 위에 세워진 용담호는 오늘날 전북특별자치도 뿐 아니라 충청권·대전권까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국가적 기반 시설이 되었음에도, 진안군은 여전히 수몰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채 재정자립도 최하위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야말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수몰 피해라는 역사적 희생을 감내한 군민들에게 정당한 회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진안군의회는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진안군을 반드시 포함할 것, △용담호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진안군민에게 정당한 회생의 가치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농민공익수당'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장수군은 지역경제 활력 도모와 농민의 공익적 가치 증대를 위해 추석 전에 농민공익수당을 지역화폐인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당은 전북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는 제외된다.

장수군은 최종 7,355명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인 경영체는 연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연 30만 원씩 총 32억 3,200만 원을 장수사랑상품권(정책발행)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 지급은 군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11일부터 17일까지 읍·면별로 직접 지급할 계획이며, 이후 기간에 수령하지 못한 농업인은 오는 11월 2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은 장계면 장계리 527-78번지 일원에 위치한 장계체육공원에 18홀 규모의 장계파크골프장을 군 최초로 9일 개장했다.

장수 장계파크골프장 개장

19억8500만원 투입 18홀 규모

장수군은 장계면 장계리 527-78번지 일원에 위치한 장계체육공원에 18홀 규모의 장계파크골프장을 군 최초로 9일 개장했다.

장계파크골프장은 군 내에 파크골프장이 없어 군민들의 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는데 군 최초로 개장해 군민 숙원사업 완성과 여가활동 새 거점이 탄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개장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최한주 군의회의장, 군의원, 도의원, 파크골프협회 관계자 및 지역단체 인사 및 군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개장식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선수단이 참여한 친선경기도 함께 열렸으며 테이프 커팅, 기념 시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됐다.

장계파크골프장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9억 8500만원이 투입됐으며 장계체육공원 부지 13,384㎡에 18홀 규모로 군민의 여가환경 개선과 건강한 생활지원을 목표로 누구나 무료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장수군은 늘어나는 파크골프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번암파크골프장을 추가로 개장할 계획이며 장수파크골프장도 내년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군은 파크골프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군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대회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최근 파크골프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군 최초로 장계파크골프장이 개장됨에 따라 군민의 새로운 휴식과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예수병원 협약… 적상보건지소 전공의 파견

무주군이 최근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예수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그동안 공중보건의사가 부재 상태였던 적상보건지소에도 전공의를 파견하게 됐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파견 전공의는 9월부터 진료를 시작했으며 매주 화요일마다 주민들과 만나 진료와 환자 관리,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보건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군 복무기간 단축과 군의관 우선 선발 등의 영향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출 인원이 급감하면서 무주군도 공중보건의 2명이 5개 보건지소를 순회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예수병원과 협력해 1명의 파견 전공의를 진료에 투입하게 되면서 3명이 보건지소 진료를 하게 되는 등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고 또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도 거두게 됐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앞으로도 예수병원과 협력해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해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집중안전점검 시·군 평가 '최우수'

무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이 된 무주군은 자타공인 '안전 관리 선도 지자체'가 됐다.

무주군은 드론, 적외선열화상카메라 등 전문 장비 활용도를 82%까지 끌어올리면서 점검 실효성을 높여 호평을 받았다.

이 외 △점검 대상 선정의 적절성, △점검 결과 이력 관리 및 후속 조치, △안전 문화확산 성과 등 5개 분야에 대한 심층 평가에서도 14개 시·군 가운데 월등한 점수를 받았다.

또한 군정 소식지에 가정용 자율점검표를 게재해 배부하고,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주민 참여형 안전 문화확산에 힘썼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노후 상수도 관세척 완료

진안군은 지난 9일 오후 9시 진안읍 단양리(북부마이산) 일원에서 실시한 관세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세척은 노후된 상수도를 대상으로 수돗물의 안정성과 수질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 수압을 이용한 피그세척 방식과 신기술을 비교 검토하여, 수돗물의 탁도 개선 효과, 세척 효율성, 작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전춘성 군수는 늦은 시간에도 직접 세척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 공무원과 작업자들을 격려하며 "군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상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관세척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2개 지구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병행 하여 군민에게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